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희망과 행함으로의 부르심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목회서신¹

하나님의 피조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의 감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구가 겪는 고통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는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계를 돌보도록 맡기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태만함과 이기주의, 그리고 교만함은 결국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초래하였습니다.

- 세계적 빈곤과 질병
 - 환경 악화
 - 무기와 폭력의 확산¹

비록 이처럼 상호 연관된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희망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킨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피조물 회복의 노력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감독들은 기초문서와 더불어 이 목회서신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만들고, 경각심을 높이며, 우리의 슬픔과 죄책감, 걱정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탄식과 고백, 결단으로 이 서신을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와 부르심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

¹ 2004년 연합감리교 총회에서는 총 감독회에 지난 1986년에 발행했던 <창조물의 보존: 핵무기 위기와 정의 평화> 자료를 보충하여 새롭게 사용할 자료집을 출간하도록 요청했고, 이 문건은 총회의 요청에 대한 총감독회의 응답이다.

상이 처한 상황에 슬픔을 느끼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에 당황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도록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파괴가 끝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을 구원하시고 화해케 하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20ⁱⁱ)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가난과 싸우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화해케 하십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인류와 식물,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각각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즉, “ 함께 신음하는” 구조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22). 평화, 인류, 그리고 지구에 대한 위협은 서로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은 온전한 세상의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된 우리는 세계의 종교지도자들과 뜻을 모아,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이에 연합감리교인들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헌신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계속 피조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인도자ⁱⁱⁱ: 우리는 물이 오염되고, 인류가 파괴되고, 숲이 불타고, 땅이 망가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기들과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당하며,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증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그들의 땅에 묻힌 지뢰들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대량살상무기들을 만들고, 그 무기들을 사용하려는 많은 나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회중: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의 상처로 인해 슬퍼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깊은 상처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중: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세상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기초건강관리와 깨끗한 물이 없는 공동체, 자연 자원이 고갈된 공동체, 그리고 관용부재와 종교적 과격주의, 인종적 혐오로 인해 분열된 공동체들을 봅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살 곳을 찾아 헤메는 난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회중: 우리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인도자: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세상,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호위호식하는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부색과 성별, 출생지로 인해 그들의 기회와 자유가 제한되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마약과 폭력의 덫에 걸린 소년, 성폭행을 당하거나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한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회중: 우리는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한 세상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전 세계적인 빈곤과 질병, 환경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의 확

산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구를 잘 돌보도록 인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웨슬리 전통인 개인적인 성결과 사회적 성결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문제에 전념하느라 피조물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외면했습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누르고, 협의와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요구하는 교인들에게 용기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교인들의 지도력에 대한 전문성과 재능을 간과해 왔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같이: 연합감리교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욕구만 채우고,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우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한 도덕적 의지를 구현하는 일은 힘들어 합니다.^{iv}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리고 돌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감독으로서 우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마음의 확신, 믿음으로 인한 깨달음”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거룩한 제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도록”^v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변화되고, 모든 인류와 지구가 더불어 함께하고, 모든 나라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신

실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서로가 화해케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합니다.

새로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가지 권고안과 아홉 가지 서약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에 맞추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실천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11).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비전이 회복과 화해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을 매일 인식하며 살도록 합시다.

둘째, 사회와 환경의 성결을 실천합시다. 우리는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 아닌 종교를 모른다. 사회적 성결 아닌 성결을 모른다.”¹¹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성결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환경적 성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구를 돌봄으로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며, 지구 온난화를 앞당기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정책들과 사례들에 도전함으로써 사회적 성결과 환경적 성결을 실천합시다.

셋째,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존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화해와 회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하라는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 함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빈곤과 질병, 환경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희망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1. *여러분의 감독인 우리는 피조물의 청지기로서의 영적 의식을 깊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교단 내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실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평가와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항상 현실과 당위성의 차이점을 직시하여, 웨슬리의 “성스러운 불만족”^{vii} 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의 삶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일례로, 총감독회에서는 미국에 있는 50여명의 현 감독들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19명의 현 감독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연회를 대표하는 우리 모든 감독들은 미국이 공정한 몫 이상의 전 세계 자원들을 소비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무기를 생산해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단해 볼 것입니다.*
4. *우리는 이러한 관심사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만들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교파와 종교를 초월한 동반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것 입니다.

5. 우리는 각 나라와 국제 기구의 권력층에 정의와 평화를 주장할 것을 서약합니다.
6. 우리는 감독과 교단 내 모든 사무실의 “ 탄소 배출량”^{viii}을 측정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결정하고, 그러한 방안들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같은 운동에 우리교회들과 학교, 그리고 기관들도 모두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7. 우리는 지구와 인류, 그리고 지역사회의 집단적 착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연회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젊은이들과 온라인 네트워크 등의 자원들을 제공할 것을 서약합니다.
8. 우리는 교단 내의 많은 변화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동참함으로써 희망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연합감리교회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입니다.
9.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고무시키고 공유하기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웹 페이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ix} 우리 교단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고들을 치하합니다.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대에 우리는 이 서약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운동에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합니다. 젊은이들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지구 저 끝에 있는 “ 형제와 자매”에게 모기장을 보내기 위하여 열심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선

작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그들의 본토에서 일어나는 시민 전쟁에서 무장 군인들이 사용할 소형 무기들이 밀입국되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들을 위해 토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교회차원에서 “녹색 환경 모임”을 창단하였습니다.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은 주요 핵보유국들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줄여나가, 검증가능한 단계별 비핵화, 즉 완전히 핵무기가 없는 더욱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목회 서신과 기초 문서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다시 헌신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교회들, 그리고 모든 공공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의 각 질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자: 여러분은 사회와 환경의 성결을 실천하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자: 여러분은 서로에게 배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 가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피조물이 빈곤과 질병, 환경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도록 헌신하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피조물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평화를 일구어 나가고, 양육하며, 희망을 실천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ⁱ 2002년 윌리엄 솔렌 코핀 목사는 정치적 삼중위협을 언급하면서, “ 더욱 위험한 삼중위협은 자연환경의 악화, 세계적 빈곤, 그리고 전쟁 무기로 넘쳐난 세상” 을 지적하였다. *The Chautauqua Appeal*, with Joan Brown Campbell and Stephen J. Sidorak, Jr.

ⁱⁱ 본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여기에 사용된 모든 성경본문은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을 사용하였다.

ⁱⁱⁱ 이 참회의 기도문을 교독문 형식으로 제공한다. 여기서 “ 목회자” 는 이 목회서신에 나타난 감독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 인도자” 는 모인 회중들을 인도하여 교독하도록 한다.

^{iv} *Hope in God's Future* , a report of the British Methodist Church Conference on *Christian Discipleship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July 2009, Wolverhampton, UK.

^v 존 웨슬리 설교 19: “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Works 1:442.

^{vi} *Hymns and Sacred Poems*, 1739, ¶ 5.

^{vii}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 목표가 될 때, 미래가 현재보다 나올 수 있다는 근본적인 희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불러 일으킵니다-이

는 개인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우위를 제공하는 불만족입니다. 게다가, 이 거룩한 불만족은 즉각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는 ‘보다 완벽한 방법’의 견지에서 새롭게 바꾸어 나갈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Runyon, Theodore,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p. 168.

^{viii} “탄소 배출량”은 이동수단과 가정 에너지 사용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온실 가스) 양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탄소 배출량은 공장이나, 사업체,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도 적용됩니다.

^{ix} 우리 협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상호 연결된 웹사이트가 제공될 것입니다. 웹 사이트는 특별히 우리 교단의 젊은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들, 그리고 연회와 지역 지도자를 위해 자원, 교육자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비디오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www.HopeAndAction.org는 임시 웹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